입시설명회 참석 교사·장학관 2년간 특정대학서 향응 받아

교과부, 광주교육청 감사결과 발표

광주시교육청 진학담당 장학관과 교사들이 2년 동안 특정대학으로부터 제주도 숙식·항공권 등 향응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시교육청은 상급기관의 감사결과를 따르지 않은 학교법인에 혜택을 주면서도, 자체 징계요구를 따르지 않은 학교법인에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광주·전남지역 호남권 진학부장 등 교사 126명과 시교육청 진학담당 장학관 등은 특정대학의 입시설명회에 참석하면서 지난 2010년,2011년 2년 동안 제주도 항공·숙식권, 선물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교과부는 이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특정대학에 지원하도록 도움을 주는 명목으로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감사원 감사결과 불이익을 줘야할 학교법인에 학급을 늘려주는 등 혜택을 줬으면서도, 정작 교육청의 자체 징계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법인에 대해 부당하게 목적사업비 지원을 2년간 중단하고 6학급을 감축했다.

사립학교의 도덕 불감증도 드러났다. 한 사립유치원은 사립대 전임강사로 재직 중인 A씨를 원장으로 임용처리한 후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급여 2700만원을 지급하고, 종일반 보조교사 1명을 허위로 채용한 뒤 그 급여 통장을 보관·관리하면서 종일반 보조금 등 인건비 6700만원을 무단 사용했다.

모 학교법인은 설립자 겸 이사장을 학교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꾸민 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타내도록 했다.

교과부는 또 사립학교 교사를 공립교사로 특별채용하면서 점수조작을 해 탈락자를 합격시킨 당시 인사과장과 실무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 정책기획담당관 전직 임용 부적정, 교원복무규정 위반 등 40건을 적발하고 모두 84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공립학교 교사 바꿔치기 채용 등을 적발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결과에 대해 "광주교육가족과 시민들께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인사관리와 법적 절차에 따른 엄정한 후속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교육감은 "40여건의 지적사항 중 내가 취임한 이후 벌어진 행정행위에 대한 지적은 4건에 불과하다"며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나비축제 성공기원합니다 20일 오후 함평 나비엑스포 전시장에서 어린이들이 오는 4월 27일 개막하는 제14회 함평나비대축제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나비를 날리고 있다. /함평=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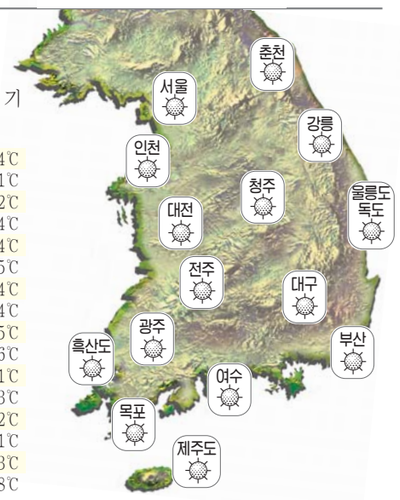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25분 해짐 18시 45분 달뜸 05시 27분 달짐 17시 38분

일교차 커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밤낮의 기온차가 크겠다.

광 주	맑음	-1/4℃
목 포	맑음	0/11℃
여 수	맑음	3/12℃
나 주	맑음	-3/14℃
완 도	맑음	1/14℃
구 례	맑음	-2/15℃
강 진	맑음	-1/14℃
해 남	맑음	-2/14℃
장 흥	맑음	-2/15℃
순 천	맑음	1/16℃
영 광	맑음	-2/11℃
진 도	맑음	0/13℃
전 주	맑음	-3/12℃
군 산	맑음	-2/11℃
남 원	맑음	-5/13℃
흑산도	맑음	3/8℃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먼바다	북~북동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먼바다	북~북동	1.0~2.0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보통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m
먼바다	북동~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m
먼바다	북동~동	0.5~1.5m

	밀물	썰물
목포	01:21 13:46	06:38 19:02
여수	08:38 20:47	02:12 14:3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2(목)	23(금)	24(토)	25(일)	26(월)	27(화)
날 씨						
최저/최고	3/12	6/8	4/8	0/10	0/13	4/16

조선대 제2병원 2016년 오픈

11만여㎡ 부지 1000병상 접근성 좋은 서구 외곽에

조선대병원 신축 병원이 오는 2016년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신축 병원은 수도권 원정 진료 환자의 증가와 KTX 개통에 따른 환자 역외 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시설은 현재 운영중인 병원보다 2배 규모로, 위치는 지역민들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을 선택기로 했다. 특히 건립 위치는 광주 서구 도심 외곽 등 도심권은 물론 시외권 지역민 모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지난 19일 서울에서 열린 제24차 이사회에서 병원건축추진위원회가 보고한 안에 따라 신축 병원을 규모는 1000병상으로, 연면적은 현재 운영 중인 조선대병원의 약 2배 규모인 11만여㎡ 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선대병원은 진료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더욱이 경쟁병원에 비해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을 살리고, 신축 병원 개원에 대비해 해외 및 국내 선진 의료기관에 의료진을 파견해 신기술을 배우도록 할 예정이다.

민영돈 조선대병원장은 "개원한지 40년이 넘은 만큼 병원이 오래되고 비좁아 신축병원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됐다"며 "서비스의 개선과 최고의 의료를 제공할 여건이 마련된 만큼 호남지역 최고의 병원으로 우뚝 서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고속도로 할증요금 100원 단위로 징수

이달 말부터는 고속도로 주말 할증요금이 100원 단위로 책정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잔돈 준비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말할증(5%) 요금의 징수 단위를 100원으로 올려 정산 때 50원 이하는 버리고 50원 초과는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평성을 고려해 전자카드 이용자와 현금 이용자도 같은 요금을 내게 된다. 예를들어 주말할증으로 1050원이 징수되는 청계, 성남, 판교 영업소에서는 앞으로 1000원만 내면 된다.

서울외곽선 김포·시흥·청계·성남·토평·구리, 서해안선 일로, 남해지선 내서, 중앙선 대동 등 시스템 전환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개방식 영업소의 경우 오는 31일부터 새로운 정산방식이 도입된다. /연합뉴스

여성들은 운동하면서도 오르가즘 느낀다

여성의 오르가슴은 섹스가 필수조건이 아니며 운동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인디애나 대학 보건대학의 데비 허베니크(Debby Herbenick) 박사는 여성은 섹스나 좋아하는 이성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운동을 하다가 오르가즘이나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것으로 영국의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허베니크 박사는 18~63세의 여성 수백 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 거의 절반이 갖가지 운동을 하다가 10차례 이상 오르가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운동종류에 따른 오르가즘 발생률은 복근운동 51.4%, 역기 들기 26.5%, 요가 20%, 사이클링 15.8%, 달리기 13.2%, 걷기/하이킹 9.6%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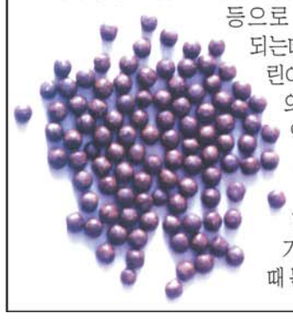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용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04-중-4738호